“호남의 농경·불교 문화 전시에 중점”

송의정 국립광주박물관장 취임

“박물관은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 시대 흐름 맞게 디지털 자료 구축할 것”

“11년 만에 광주로 돌아왔네요. 아직은 이것저것 파악할 단계이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농경·불교 문화 전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7일 만난 송의정(56) 신임 국립광주박물관장은 “11년 전 제대로 조경이 안돼 황량했던 광주박물관이 지금은 공원이 다 됐다. 감회가 새롭다”고 부임 소감을 밝혔다.

지난 달 23일 부임한 그는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립부여박물관장, 국립김해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장 등을 거쳤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을 지내며 국립박물관과 문화재청 사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1년에는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약 4년간 학예연구실장을 맡으며 광주와 인연을 맺기도 했다. 당시 그는 신창동 유적(사적 375호), 해남 장고봉 고분, 해남 용일리 용운고분, 보성 동촌리 고인돌 발굴에 참여했다.

“전 부산 기장군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이야 부산시에 편입되며 도시로 불리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완전 시골이었죠. 그래서인지 농경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나라 농경 중심지인 호남에 근무하게 됐으니 지역 특성에 맞는 기획을 해보고 싶어요.”

송 관장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말한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었으면 국가도 없었다는 뜻)에 주목하고 있다. 호남 곡창지대가 있었으니 임진왜란을 이길 수 있었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최대 농경 유적인 신창동 유적부터 최근 농경 사회를 동시에 보여주는 전시를 떠올리고 있다.

또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불교다. 남원 실상사, 장흥 보림사, 곡성 태안사 등 지역 선종 사찰을 중심으로 한 기획전도 구상 중이다.

특히 그가 광주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고려인이다. 고려인은 광산구 일대에 약 3000명이 살고 있다. 송 관장은 부임하자마자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협동조합을 찾아가기도 했다.

송 관장은 국립김해박물관장 재임 시절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사를 벌였다. 박물관에서 음식냄새를 풍기는 일이 금기시되던 시기였다. 송관장은 아랑곳 않고 그들에게 태국 국수, 꼬치구이 등 음식을 팔게 하고 수익을 얻게 했다. 당시 7000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뤘다.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는 고려인 광주 고려인에 정체성 심어주고 싶어 다문화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

“지역박물관이 다문화가정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한다는 생각에 내가 모든 걸 책임질테니 행사를 추진하자고 밀어붙였죠. 광주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도 엄연히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힘들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힘을 줘야해요. 그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

그는 지난 1997년부터 약 10년간 국외 학술발굴조사 프로젝트인 몽골 조사를 기획하고 참여한 흉노 전문가다.

“중국 역사서 ‘사기’를 보면 ‘조선은 흉노의 왼쪽 팔뚝이다’고 나와있어요. 흉노족이 아닌 흉노제국으로 불러야해요. 평양에서 출토된 낙랑 수레장식 유물과 몽골 유물이 똑같아요. 중국 역사는 재해석 돼야합니다.”

“박물관은 기본적으로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해야합니다. 시민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되죠. 학자들이 보면 유치하다고 할 정도의 전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현재 전시는 대개 아날로그 자료 위주로 구성되는데 시대 흐름에 맞게 디지털 자료를 구축해야돼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되는 것이죠.”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송의정 국립광주박물관장(오른쪽에서 여섯번째)이 지난 2001년 학예연구관 시절 보성 동촌리 고인돌 유적 발굴 조사를 하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김선이 명창 판소리 동초제 ‘흥보가’

내일 목요열린국악한마당 초앞~흥보박타는대목까지

소리꾼 김선이 명창이 광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에 진행되는 목요열린국악한마당 무대에 선다. 9일 오후 7시 전수관 공연장.

김씨는 이번 무대에서 판소리 동초제 ‘흥보가’를 들려준다. 판소리 동초제 ‘흥보가’는 동초 김연수선생 바디로 김연수-오정숙-김선이로 이어져 내려오는 소리다

이번 공연에서는 ‘초앞~대장군방~흥보 박 타는 대목까지’를 들려준다.

김선이 명창은 1998년 남원춘향제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사)백제남도소리고법진흥회 이사장, 김선이 판소리 연구소 원장으로 활동중이다.

고수는 박시양(중요무형문화제 제5호 판소리고법 전수조교)씨다.

전석 무료.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4회 담양 송순문학상 작품 공모

시·소설·어린이 문학

면앙정가단의 창설자인 송순(1493~1582)은 담양이 배출한 뛰어난 문인이었다. 그는 인품이 뛰어났으며 성격이 너그러워 당대의 많은 선비들과 교유했다. 이황은 “하늘이 낸 완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송순의 사람됨을 높이 평가했다.

담양군과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설재록)는 면앙 송순 선생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한국 가사문학 발전과 지역문학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제4회 담양 송순문학상’ 작품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시(시조포함), 소설, 어린이 문학이며 응모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 대한민국 신인 또는 기성작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응모 대상작은 담양을 소재로 하거나 담양 관련 인물 등과 관계된 미 발표작으로 최근 2년 이내(2014.6.1~2016.11.30) 출간한 작품집에 한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2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상 2명에게도 상패와 함께 5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응모작은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위원회(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청 문화체육과 내)로 우편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1-380-2801~2.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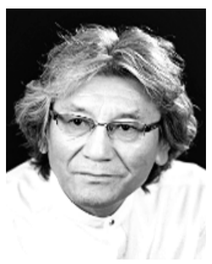
이안삼 작곡가와 ‘어느 날 내게 사랑이’ 배우기

10일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욱) 6월 행사가 10일 오후 7시 광주시 북구 임동 강숙자 오페라 라인 연주홀에서 열린다. 이달의 초대 작곡가는 서정적인 노래로 가곡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안삼(대한민국가곡제 운영위원장)씨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의 대표작 ‘어느 날 내게 사랑이’를 다같이 배우고 ‘내 마음 그 깊은 곳에서’,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등 그의 대표작 12곡을 연주하고 함께 부르는 시간을 마련한다.

낭송가 서애숙 씨가 송수권 시 ‘여승’을 낭송하며 꿈나무 연주로 양현지(풍영초 4)양이 ‘바람이었으면’을 노래한다. 또 서혜란, 박상휘. 박안수, 김희숙. 정갑주, 황선제, 나인희, 임동윤, 김우진 씨 등 회원들이 아름다운 가곡을 들려준다. 그밖에 소프라노 조정순씨와 챔버싱어즈(지휘 박호진)가 특별 출연, ‘우리의 사랑’과 ’“우리 어머니’를 들려준다.



작곡가 이안삼

소프라노 조정순

또 ‘파란 마음 하얀 마음’, ‘별’, ‘기다리는 마음’ 등 익숙한 가곡도 함께 부른다.

1만원을 내면 차와 간단한 먹을 거리를 제공한다. cafe.daum.net/gjkrsong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극단 ‘청춘’ 배우·스텝 신입단원 모집

1989년 창단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극단 청춘이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20세 이상 남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모집 분야는 배우(연극 연기)와 스텝(조명, 음향, 무대)이다.

마감은 오는 24일까지며 극단 청춘이 운영하는 ‘예술극장 통’에서 오디션을 진행한다.

극단 청춘 카페(cafe.daum.net/cctheater)에서 입단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이메일(cctheater@hanmail.net) 접수하면 된다.

청춘은 창작극, 번역극, 아동연극 등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문의 062-430-52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북성중 28회 친구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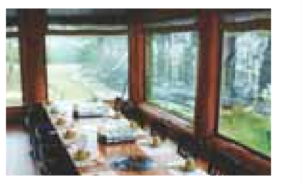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외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북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북성 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A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